

# 무등산 고층아파트 도시계획 심의 반발

광주 동구 소태동 무등산 인근 신축 아파트 도시계획심의를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환경파괴와 산사태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소태동 지역주택조합은 동구 소태동 459의1 일대 2만5400㎡에 13~16층 규모 아파트(총 288가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무등산 국립공원 보호구역과 인접한 이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100~200%)으로 지정돼 있어 5층 이상 주택을 지을 수 없다.

조합은 해당 지역을 10층 이상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150~250%)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부지는 무등산과 연결된 구릉지역이다. 30여m 내에

## 동구 소태동 일대 13~16층 규모 건설 추진 환경단체 외, 생태계 파괴·산사태 등 우려

위지한 제2순환도로 지원터널 공사 과정에서 산 지반이 약해진 상태다"면서 "등고선 96m 지점에 옹벽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집중호우에 따른 범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층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수량이 80년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수리나무, 단풍나무, 편백, 소나무를 잘라야 한다"면서 "생태계 파괴와 경관 훼손은 불가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은 광주시가 지난해 발표한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을 들어 사업계획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계획에 따르면 무

등산 자락의 제2순환도로 주변 '경관 중심 관리지역' 내 일반주거지역의 종 상향 요건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계획발표에 앞서 추진되고 있는 해당 사업은 적용받지 않지만, 시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교통혼잡과 주변 주택 일조권 침해 등이 반대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도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시는 무분별한 지구변경을 중단하고 무등산 자락의 보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종 상향 심의 자체를 중단하고 심의위원은 현상실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동구는 "시와 관계기관의 지적을 수용하고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문제점이 보완된 만큼 절차에 따라 종 상향 심의에 들어간 것이다"면서 "종 상향 심의 과정에서 추가 보완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난해 8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종 상향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협의를 광주시에 요청했다.

시는 교통혼잡 해소방안과 개발제한구역 주변 완충녹지 조성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으며, 지난 11일 보완된 지구단위계획 협의의 신청서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소태동 아파트 신축부지 종 상향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서은홍 기자

## 광양서 보이스피싱 인출·송금액 2명 검거

광양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송금액과 인출액 남녀 1명씩 2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금액 A(43)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24차례에 걸쳐 13억 원 상당을 인출해 B 씨에게 전달받아 뱅킹에 송금하고 수고비로 1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35·여) 씨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는 사기단 콜센터에 속은 피해자 8명이 B 씨의 모 은행 계좌에 1억 원 상당을 송금하자 그 돈을 광양시 일대 여러 금융기관에서 출금해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경찰은 B 씨에게 건네받은 피해금 대부분을 뱅킹에 송금한 후 대경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도주하려던 A 씨를 버스 터미널에서 붙잡았다. B 씨는 여러 차례 다액 점포출금을 의심한 새마을금고 창구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양경찰서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으며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등 뒷선까지 수사하고 있다.

광양=김승호 기자

## 여수 해상서 어선 2척 충돌...인명피해 없어

30일 오전 7시 28분께 여수시 소리도 남동쪽 24km 앞 해상에서 60t급 어선과 10t급 어선이 충돌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사천선적 대형기선지인망 어선 D 호(60t·승선원 7명)와 여수선적 통발어선 M 호(9.7t·승선원 4명)가 충돌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2척과 해경구조대를 사고 현장에 보냈다.

해경 확인 결과 두 선박 승선원 모두 건강상 이상이 없는 상태였으며, 충돌 여파로 어선 D 호의 선수 구상선수 일부가 깨진 상태였다. M 호는 좌현 중앙 갑판에 1m 정도의 구멍이 뚫렸으나 침수 피해와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두 선박의 선장과 승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 음주운전하다 순찰차 들이받은 30대 입건

나주경찰서는 30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3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9일 오후 9시33분께 나주시 남해동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면허정지 수치)인 음주 상태로 SUV를 몰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씨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순찰차 운전석 문쪽을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중이다.

## 젓소도축 뒤 한우로 속여 유통 일당 검거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젓소를 불법도축한 뒤 한우로 둔갑시켜 전국적으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젓소를 불법도축한 뒤 한우로 속여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A(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 아내 B(56·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 7명은 지난해 11월22일부터 지난 28일까지 전남 고흥군 아산·축사 등지에서 비위생적으로 젓소 10여 마리를 밀도축한 뒤 태백을 이용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남·전북·충남 등지에서 소 중개인으로부터 젓소 1마리 당 150만원(한우 유통가의 25% 수준)에 구입한 뒤 새벽시각에 트럭을 타고 아산·축사에서 도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도축한 소를 한우로 둔갑시킨 뒤 태백을 이용, 전국 각지의 도매상·소비자에게 600g당 1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소고기를 구입한 거래처 중에는 다중을 상대로 음식을 판매하는 정례식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17차례에 걸친 잠복수사를 통해 A씨 등 6명을 지난 28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통신·계좌거래 내역을 추적해 유통책 1명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젓소 공급 업자와 유통업자, 구입 사업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 전남경찰, 설 연휴 기간 교통특별관리

전남경찰이 설 연휴기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연휴가 시작되는 2월1일 오후부터 6일까지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길목에서 교통특별관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통관리대책에는 교통경찰 102명, 지역경찰 228명, 기동대 60명 등 390명이 투입되고 순찰차 146대 등이 동원된다.

교통경찰은 혼잡이 예상되는 45개 장소와 성묘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16개 공원묘지 주변에 집중투입돼 교통량 분산을 유도, 정체해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설 연휴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70건으로 16명이 숨지고 991명이 부상을 입었다.

교통사고는 명절 당일과 다음날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교통 경찰은 오후에는 혼잡구간과 성묘객이 몰리는 도로에 집중 투입되고 이간에는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슬픔 속에 진행된 수요집회 30일 오후 김복동 할머니 별세 후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372차 수요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김복동 할머니를 추모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순천지청, 청암대 마전 조교·공범에 징역 6월 구형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수천만원을 봉급으로 지급한 회사 대표 L모씨에 대해 횡령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3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광양산단 내 S회사 대표이사인 L씨는 청암대 마전 조교가 회사에 근무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직원인 것 처럼 급여 2014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8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라는 것.

업무상횡령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마전 조교는 위증죄와 병합

패 추후 구형이 이뤄진다. 검찰조사 당시 L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회사 직원을 참고인으로 내세워 마 전 조교가 근무했다고 허위진술을 하게하고 마씨는 재택 근무를 했으며 매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회사에 출근했다는 증거 등을 제출 했지만 검찰 수사로 허위로 판명났다. 마씨의 남편이 당시 공익근무자로 수입이 없어서 회사 돈으로 생활비와 보험혜택까지 받

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단체 한 회원은 "장년실업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이를 악이용하는 병폐적 진실규명을 위해 릴레이 피켓시위를 하기도 했던 사건인데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마전 조교는 지난해 12월 위증죄 3건으로 순천지청에 기소송치된데 이어 또다른 위증 혐의와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중이어서 재판의 결과가 주목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